

매일 108배로 '새만금' 동참

장선우 감독·명계남 씨 3일 흥기삼총장 동참



영화인 명계남·장선우·예지원 씨와 조계종 중앙신도회 백학기 회장, 최연 사무총장, 장영철 화백 등이 삼보일배 현장을 방문(사진제공)

영화인 명계남·장선우·예지원 씨와 조계종 중앙신도회 백학기 회장, 최연 사무총장, 장영철 화백 등이 삼보일배 현장을 방문(사진제공)

이제 앞서 3일 흥기삼 동국대 총장이 삼보일배 순례에 동참했으며, 6일 오전 김영진 농림부 장관도 현장을 방문했다. 김 장관은 "건강 등을 고려해 삼보일배를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다. 여기에 대해 문정현 신부는 "그것은 삼보일배를 모독하는 것이다"라며 단호한 뜻을 밝혔다.

천안=남동우 기자



4일 동대문운동장에서 열린 연등법회에서 한마음선원이 제작한 봉황 장엄물이 참석자들의 환호속에 선을 보이고 있다. (왼편은 박근영팀장)

한마음선원 연등축제로 주목, 노하우는?

"스님·신도 한 뜻 1년내내 준비"

연등축제에서 늘 새롭고 화려한 모양의 장엄물과 질서정연한 제등행렬을 선보이는 한마음선원(원장 대행, 한마음선원이 봉축기념 '전통등 경연대회' 등에서 때때로 최우수상과 우수상 등을 휩쓸고 연등축제 평가에서도 수상의 대열에서 빠지지 않으며 불자들의 시선을 끄는 노하우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신도들의 조직적인 준비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 중심에 박근영 연등축제 기획팀장(31·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있다. 박 팀장은 불자들의 의견을 모아 기획하는 역할을 3년째 맡고 있다.

박 팀장은 "장엄물 제작의 포인트는 첫눈에 감동을 받아야 하고 곧바로 그 의미를 깨우쳐 마음자리를 밝히도록 하는데 있다"고 강조한다. 올해도 새로운 연등을 선보이기 위해 박 팀장은 작년부터 스님, 불자들을 위한 등 '한마음'이 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고 한다. 박 팀장은 "앞으로 더욱 다양한 모양의 연등을 내와 환희와 찬탄의 연등축제를 만들어 가는데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를 거뒀다. 또 영꽃등, 잉어등, 코끼리등, 선녀부채등, 왕관등, 영원한불등을 출품한 단체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연등을 만들며 수없이 시행착오를 겪은 박 팀장은 전통등강습회에서 연등 제작을 배워오거나, 잘 찢어지는 종이의 성질을 보완하는 방법도 개발해 내는 등 '한마음'이 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고 한다. 박 팀장은 "앞으로 더욱 다양한 모양의 연등을 내와 환희와 찬탄의 연등축제를 만들어 가는데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박근영 팀장 "첫눈에 감동주기가 포인트"

신도들과 수차례 회의를 하며 연등 축제 참가 계획을 세웠다. 2월부터 연등 제작에 들어가 모두 5개의 장엄물을 완성해 '전통등 경연대회'에 출품했다. 이중 반딧불등과 고래등이 작년에 이어 개인 우수상과 특선을 수상하는 성과

를 거뒀다. 또 영꽃등, 잉어등, 코끼리등, 선녀부채등, 왕관등, 영원한불등을 출품한 단체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연등을 만들며 수없이 시행착오를 겪은 박 팀장은 전통등강습회에서 연등 제작을 배워오거나, 잘 찢어지는 종이의 성질을 보완하는 방법도 개발해 내는 등 '한마음'이 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고 한다.

박 팀장은 "앞으로 더욱 다양한 모양의 연등을 내와 환희와 찬탄의 연등축제를 만들어 가는데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김유신 기자 shanmok@buddhapia.com

'나눔의 집' 할머니와 따뜻한 하루

선화예고 학생 등 조출한 어버이날 행사

나눔의 집 앞마당. 살풀이 춤사위가 공중에 흩날린다. 어버이 은혜 노래 대신 살풀이가 어울리는 어버이날, 무희는 프로그램이 아니라도 상관없다. 어버이날을 맞아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사랑의 꽃을 달아주는 조출한 행사도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에서 열렸다. 일년에 하루뿐인 행사도 해도 일지라도 할머니들은 그런 '하루의 효도'가 어려운 사람들이다. 이날 행사는 선화예고 학생과 서울시 후원회 회원, 개인 참석자 등 1백여 명이 나눔의 집을 방문해, 할머니

들의 딸과 아들이 됐다. 오전 11시, 학생들은 할머니들에게 케이션을 달아주고 큰 절을 올렸다. '참석한 모두에게 감사하다'는 김순덕 할머니(83)의 짧은 인사로 긴 여운을 남겼다. 선화예고 1학년 학생들의 국악 연주가 끝나자, 흰 치마에 얇은 수건을 들고, 머리를 굽게 쪽진 여학생의 살풀이가 시작된다. 봄날 아침 햇살 속, 무희의 춤사위에 할머니들의 시선은 집중되고, 무희는 할머니들의 무거운 삶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려는 듯 힘찬 손

림을 보인다. 선화예고 1학년 고현정(17)세양은 "오기 전에 어버이날이라 좀 떨렸지만 역사관을 둘러보고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나눔의 집에 있는 할머니들이 내 어머니 할머니와 마찬가지로 느껴졌다"고 말했다. 미술과 학생이 그려준 자신의 그림을 든 이용수 할머니(79)는 눈시울을 붉히며 한을 토해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제 목숨 다하는 날까지 투쟁하겠습니다." 광주=박봉영 기자



조계사 불교대학 학생이 할머니에게 꽃을 달아주고 있다.

"할아버지·할머니 건강하세요" 조계사서 경로잔치

"할머니 할아버지 건강하세요" 서울 조계사주지 지회는 6일 대웅전 앞마당에서 4000여명의 노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로잔치를 개최했다. 조계사가 위탁운영하고 있는 서울 노인복지센터와 공동으로 이날 행

사는 조계사 합창단의 축하, 초대 가수 방실이의 경쾌한 악대의 축하 공연, 낙산 어린이집 아이들과 늘푸른 예술단의 재롱잔치 등 문화공연과 점심공양 등의 프로그램이 이어졌다. 조계사 불교대학과 노인복지센터 봉사자들은 어르신들에게 케이션을 달아주고, 햇빛 가릴 모자를 나누어 줬다. 부산 용호종합사회복지관(관장 해충도) 7일 어버이날을 맞아 지역내 독거노인 및 영세가정 노인들을 위로하기 위해 '어르신(효)큰잔치'를 실시했다. 복지관의 각종 노인 복지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노인 등 1천여명이 함께 한 이날 행사는 다양한 공연이 마련됐다. 또 포천 왕산사주지 법회는 3일 포천종합운동장에서 1천여명의 노인들을 초청, 효잔치 한마당을 개최했다. 김원우기자



반야선'이 한강을 아름답게 수놓고 있다.

한강연등제 개막

불교TV, 반야선 띄워

불교TV(회장 정우)와 불교TV문화원(원장 구본일)이 6일 한강시민공원 여의도지구 야외무대에서 '한강연등

제' 개막 및 점등 행사를 열고 1만2천개의 연등으로 장식한 반야선(하천·운하 등에서 화물을 운반하는 소형선박) 1척을 한강에 띄웠다. 1부 개막식에서 정우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민족을 잇는 연등으로 한강에 자비의 연등을 밝히는 것은 우리 민족의 미래에 희망을 밝힌다는 의미'라며 "연등제를 통해 국민 모두에게 부처님의 자비 광명이 머칠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개막식과 점등식에 이어 진행된 2부 축하행사에서는 영상재보존회(회장 인공)의 괘불의식과 범패, 나비춤

시연 등이 펼쳐졌다. 높이 15m인 두 개의 탑모양 철조물에 불자들의 발원을 담은 연등을 단 '반야선'은 8일까지 한강에 띄워졌다. 여수령 기자 "부처님 생각하며 그랬죠" 도선사 어린이 미술대회 도선사주지 해자는 5일 제1회 어린이미술대회를 개최했다. 1백여명의 참가 어린이들은 도선사 경내에서 순수한 마음으로 부처님의 모습을 표현했다. 그림대회 최고상에는 부처님을 중심으로 연꽃, 물고기, 용을 통해 아름답고 자애로운 모습을 그린 임아란(삼선초교 3년) 양이 차지했다.



도선사 미술대회 최고상 '부처님'.

임아란 양은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미술선생님이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김원우기자

'한민족 통일역사 만들기' 강좌

좋은벗들, 15일부터 7월10일까지

2000년 3월 1일부터 2002년 11월 26일까지 1000일동안 '통일미래를 준비하는 143회 연속대화마당'을 진행했던 좋은벗들이 15일부터 7월 10일까지 '한민족 통일역사만들기' 강좌를 개최한다. 민족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선택한 경험 속에서 오늘날의 교훈을 얻기 위해 마련된 강좌는 22일 '잃어버린 민족의 뿌리를 찾아서(배영기 숭의여대 한국유리학과 교수)를 비롯, 7월 3일 '외세와 민족자주(조성철 국제문제연구소)' 등으로 이뤄진

다. 문의 02587-8996 남동우 기자

사찰생태해설가 양성

사찰생태연구소(소장 김재일)는 사찰 자연환경 보전과 불교 생태운동을 이끌어갈 제1기 사찰생태해설가 양성을 위한 연수를 실시한다. 기간은 22일부터 7월18일까지. 문의 02712-5812 남동우 기자

자비를 실천하는 나눔의 개인 콜택시입니다. 수익금의 일부는 불우 이웃과 장애 복지 단체에 쓰여집니다.

수도권 미터요금 운행 지역
인천국제공항, 일산, 김포, 부천, 안양, 평촌, 군포, 신변, 성남, 분당, 수지, 구서, 하남, 의정부, 남양주 일부

서울 운불련 나눔콜택시
1588-5532

불기 2547년 부처님오신날

대한불교 조동종 지장도량

옥불금통사

회주 김법공(德龍) 011-781-0218
주지 최수임(行天) 018-337-1244

회장 최영륜(性大)
지장회 이동현(性法)
해외성지 흥경교(大願行)
방생회 정옥련(大衆華)
산악회 김미금(自性華)
자비회 정재숙(慈悲行)
후원회 최옥림(天錦華)
홍보부 김경렬(性淨)
행자진 오(永辰)
상조회 권석조(性圓)
관음회 김태숙(普明華)
보현회 이강남(圓明心)
문수회 구순자(淸淨華)
연화회 민병승(修德華)
달마회 정하희(功德華)
총무 홍춘교(普提心)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외동 261-28호
02)383-3346

당뇨

다운 밸런스

- 당뇨, 만성피로 등 각종 성인병 개선에 효과 '놀라워' -

그것은 다운 밸런스는 사람의 체질을 약화시키는 원인으로 바꾸어 주는 원인이 강하기 때문이다. 체질을 바꾸기 전에는 당뇨병에서 헤어날 수 없다. 인슐린 양이 부족하여 높게 상승한 혈당치가 다른 밸런스의 당대사를 개선시켜주는 강력한 작용으로 천천히 떨어지도록 도와준다. 당뇨병을 유발시키는 당뇨병으로 인한 합병증은 개선 예방할 뿐만 아니라 당뇨로 인해 생기는 영양소 불균형을 균형있게 공급하여 무너진 영양밸런스를 조정에 준다.

▶ 다운 밸런스의 당뇨에 대한 효과
20일~30일만 드셔도 효과가 나타나며 1~2개월만 드시면 병원약(신약)을 먹지 않아도 됩니다.

다운 밸런스 90mg cap 90 cap x 3회
1개월분 130,000원

당뇨병 외 기타질환에 대한 다운 밸런스의 효과
· 위궤양, 비만증, 무중, 체력증강 · 갱년기 장애 등
· 감기에 걸리지 않는 체질로 개선 · 자율신경질조동
· 피부를 얇고 지를 맑게 해줌 · 정력증강, 술, 담배해독
· 피부를 아름답게 부드럽게 해줌 · 암, 관절염, 고혈압

조원제약(주) C.W. 조원제약(주) C.W. 조원제약(주) C.W.
주문 및 상담 (02) 598-9832
무료 전화 080-598-9832

승복법복안내

확실한 품질 · 만족할 가격

1. 춘하모직 특징 - 가볍고 통풍이 잘됨
적삼·바지: 100,000 ~ 130,000
동방·바지: 130,000 ~ 160,000
두루막: 100,000 ~ 130,000
2. 무명 수재·한국산 목물 염색
적삼·바지: 180,000
동방·바지: 220,000
두루막: 180,000
3. 조각무늬 면 100% 한국산목물, 손염색
광복 - 적삼·바지: 110,000 ~ 130,000
동방·바지: 140,000 ~ 160,000
두루막: 110,000 ~ 130,000
4. 면 래우사 특징 - 세탁시 풀 안해도 됨
적삼·바지: 130,000
동방·바지: 160,000
두루막: 130,000
5. 장삼 특징 - 가볍고 통풍이 잘됨
모직: 180,000 ~ 250,000
솜머플: 200,000
6. 신도복 (단체주문받습니다)
조끼·바지(모직회색): 60,000
7. 셔츠(차이나 라운드) · 겹마 · 손가방

◆유사제품과 비교해 보십시오◆
전화주시면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치: 지아실 경영로 3번출구(동이백외점 방향 입구)

30년 전통의 승복 천문 업체 원방각

아름승복
전시장: 053-256-0108
공장: 053-425-4449
휴대폰: 016-597-4449
011-809-2398

주소: 대구광역시 중구 포정동 6-11 (지역판매점 모집)

간(肝)

간지방간
간경화

건강해야 장수할 수 있습니다.
지리산자락 신비의

참다슬기 농축액

토종 웅덩과 비밀만한 자연산 참다슬기 소량의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재식(가미술) 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생애 한 번을 열어줍니다.

참다슬기 농축액: 지리산 자락 계곡 맑은 물에서 채취한 참다슬기와 구슬알 다슬기를 죽은 것과 빈 껍데기를 골라내어 깨끗이 씻고 해금 시킨다. 다음 다슬기 10kg을 분쇄하여 가미술에 넣고 전통비법으로 다슬기 속살이 녹을 때까지 48시간을 다룬다. 여기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달인다. 농축액은 60도 단위로 포장합니다.

참다슬기 기름: 다슬기 15kg을 향이리에 넣고 향기 97가마니를 달은 뒤 향기에 불을 붙여 그 열로 다슬기 기름이 끓어오르면 흰 향이리에 녹아 흘러내리게 합니다. 다슬기 기름을 만든 다음 향이리 가마니를 꺼내어 8-9일 걸립니다. 한달 분은 1.8리터입니다.

『농축액을 개발하여 KBS TV "6시 내고향"에 방영된 이래로 "생방송 좋은아침" MBC TV "고향은 지금" 조선일보, 중앙일보에 소개 됨』

자료신청: (055) 963-9583 · 상담문의: (055) 355-5626
산마를 토착 (민승농원)